



육군 초급 부사관 과학화훈련 모습.

하사 과학화 훈련 '전술 사격자세' 눈길

육군, 핑거 세이프티 등 완벽구사

창끝전투의 리더가 될 육군 초급부사관(하사)들이 4일 연속 주야간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한국군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술 사격자세'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군은 9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맹훈련 중인 초급 부사관 450명의 과학화 훈련 소식을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전체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9일부터 12일까지는 주야연속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공개한 훈련 참가 하사들은 총기의 오발사를 예방하는 기본 전술 자세인 '핑거 세이프티'와 중근거리 속사에 자주 쓰이는 '씨 클램프 그림' 자세까지 완벽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한 하사는 총기의 안전한 조작을 돕는 사제 전술장갑까지 착용했다.

그동안 군은 기본적인 전술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개인전투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

다. 그렇지만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이 잘 잡힌 전술훈련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육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은 레이저를 실탄대신 발사하며 교전이 가능한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전투조끼와 방탄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한 장비와 공포탄과 활성교보재 등을 사용해 실전에 가장 근접한 효과를 내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하사 450여 명을 주축으로 한 대대 전투단이 전문대학군 부대와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초급부사관들로 구성된 전투단을 편성해 KCTC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들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80여 명이 훈련에 동참했다.

육군은 초급 부사관의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신임장교 KCTC 훈련'을 비롯해 2개의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KCTC 쌍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에 400억 사업화 추진으로 사업단절 막는다

산업부, 6대분야 136개 품목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확대 시행 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 중점고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3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양산성능평가에 국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하지 못해 제품 양산에 실패하는 '사업단절(Death Valley)'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 2차년도 대상으로 6대 분야 136개 품목을 지난달 말 선정완료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최종 수요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의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되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규 신규사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전략적 측면을 중점 고려하고,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토록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소부장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2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을 계기로 1차년도 사업 우수 사례인(썬자화전자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사업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25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수요기업이 자사 생산라인을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등 소부

장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낸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 생산업체인 코리아인스트루먼트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D램용 프로브카드' 양산개발에 착수했고, D램 공급량 확보 및 3년간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분야 지엠비코리아는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에서 미래·친환경차 부품개발로 전환을 위해 현대차와 '수소차 스택 냉각용 워터펌프' 양산개발에 착수해 세계 최초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총 129개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등 핵심기술 자립화 등 올해 말까지 40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산화탄소 포집 고도화에 950억 투입

산업부 '넷제로 수요관리사업' 공고 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대상 투자

시멘트와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도화에 95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Net-Zero 수요관리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주요 다배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과 저장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CCUS 분야 7개 과제에 총 9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LNG 발전배가스 포집 기술 격상 실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킬른 배가스 대상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기술 개발과 포집된 이산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다빈치홀에서 열린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적용 가능한 현장 맞춤형 탄산화 기술 및 저탄소 연료/화학원료(메탄올)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저장 운영관리 기술 고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부족한 국내 저장소 용량 증진과

저장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포집기술은 2024년까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수소·LNG 발전 등 주요 산업별 파이롯 플랜트급 포집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기술은 2024년까지 저장 안전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 활용 중규모 통합실증 사업 추진시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6월 이어 9월 최다

경찰청, 최근 10년간 5만여건 분석 지난해 사고 5667건, 사망자 83명 토요일 오후 4~6시 사고비율 높아

자전거 교통사고는 6월에 이어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간은 토요일 오후 4~6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 4건 당 1건은 65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였고, 고령 운전자 사고시 사망률도 전체 사고 대비 2.5배 이상 높았다.

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67건이 발생해 사망자 83명을 포함해 총 6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6월(6097건)에 이어 9월(5907건)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1.5%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도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9월 자전거 교통사고 중 토요일 오후 4시~6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운전자 연령층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1435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4분의 1 이상인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도 약 2.5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5만124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971명이 사망,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1.89%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1만1421건이 발생해 526명이 사망, 2.4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망사고 중 54.2%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토이미지

농공상기업 제품 최대 25% 할인 진행

농식품부, 네이버·우체국쇼핑서 제품 구매고객에 할인쿠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농공상기업) 제품을 15~2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 9월 13일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 구매 고객에게 15~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15% 적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매장인 용산역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26일까지 2주 간 유통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해 2만원

이상 구매시 보령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 농공상기업 전용 브랜드 '찬들마루'를 출시하는 등 매년 우수 농공상기업 홍보와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용판매관 입점 업체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세종=한용수 기자